

#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업교육 : 일감갓기 사업을 중심으로

정금주\* · 김경미\* · 고운미\*\*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관 ·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박사 후 과정

## A Study on the Vocation Education for Women in Rural Areas:

### Ilgam Gatgi Project

Kum Ju Chung \* · Gyung Mee Gim \* · Woon Mee Koh \*\*

\* Researcher,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 Post-doc,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 Summa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review the Ilgam Gatgi or a job project of the rural women, b) to relate the vocational educational strategie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c) to suggest appropriate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rural women in Korea. The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review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government should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to support rural women for facilitating them to have a sound understanding of the Ilgam Gatgi project.

Second, government should provide diverse vocational education programs to facilitate participation in the tasks such activities as for upbringing management mindness, counting and marketing abilities.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s should be emphasized to develop further the traditional foods as well as new products.

Third, national support activities should be reinforced to let the people recognize the Ilgam Gatgi projects and its products. and governmental supports should be made to establish cyber business transactions system for the products from the Ilgam Gatgi projects.

Fourth, education for the laws and regulations on manufacturing and marketing of processed foods would be necessary for rural women, since the majority of the products from the Ilgam Gatgi projects were processed foods.

**Key Words : Rural Women, Vocational Education, Ilgam gatgi**

## I. 서 론

최근의 사회는 예측불허의 불연속적이고 불확실한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소극적인 환경대응적인 노력만으로 변화와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동인은 무엇이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패턴이나 유형을

포착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발전방향을 감정적으로 모색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로 지식에 대한 논의가 단연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는 사회, 문화, 정치, 교육 등 지식을 토대로 새롭게 전개되는 변화의 양상과 영향은 그 어떤 것보다 그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

에 대비하는 새롭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직업교육의 방향과 전망, 그리고 과제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특히, WTO의 뉴라운드, FTA의 확대 등 세계화와 개방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우리 농업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하고, 농산물 생산에만 매달려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어려워졌다. 2002년 현재 농가인구의 비율은 8.3%, 농가소득은 도시 가계소득의 75%에 불과하여,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찾는 일이 매우 절실했다. 이와 더불어 농업인이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농가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펼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간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교육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산단지 개발사업,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식품가공사업 등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박성자 외, 1997).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농가들의 농외소득 비율은 1997년의 36.9%를 최고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고, 농촌 체험관광이나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정책지원사업은 아직 시도단계에 있을 뿐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아직까지 이렇다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영석, 2003)이라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하여 1990년부터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기술습득, 상품생산, 포장, 유통판매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 당 지원액은 많지 않지만, 여성들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내실있는 사업장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김화남, 2003). 이렇게 일감맞기 사업이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감맞기 사업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직업

교육의 시각에서라기보다는 관 주도의 사업 측면에서의 결과에만 치중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 일감맞기를 사업위주의 시각이 아닌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여성농업인 일감맞기 사업 추진 배경과 사업현황과, 둘째,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화를 위한 직업교육 전략 및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 후, 셋째, 여성농업인 일감맞기 직업교육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여성농업인의 개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여성농업인이라 부르게 된 것은 농업이나 농촌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전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건 아니건 농촌에 있는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던 농촌부녀자 또는 농촌여성이라는 말은 농가의 다양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여성을 가리키는 용어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면서, 농민을 농업인으로 칭하면서부터 여성농업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은 농업취업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 흔히, 농촌여성, 농가여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농촌여성은 통합시를 포함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이며, 농가여성은 농가의 가구에 속하는 여성을 의미한다. 농촌여성 중에는 농가여성과 비농가 여성이 모두 포함되고, 농가여성 중에는 여성농업인 이외에도 농가에 속하면서 농림업에 취업하지 않는 여성, 즉 농림업이외 부문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이 포함된다. 또한, 여성농업인 중에는 비농가에 속한 여성농업취업자가 포함된다.

이러한 여성농업인은 196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며, 1990년대 이후에도 농업노동력의 여성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고, 농촌지역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농업

생산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여성농업인은 이제 농업생산의 기간노동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읍면부에 거주하는 농촌여성은 총 181만명이며, 이중 15세 이상 농가여성은 164만명이다. 전체 농가인구 중 여성농업 주종사자는 10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표 1>과 같다.

여성농업인 노동력의 비중은 가족 내 영농활동 이외에도 고용노동의 경우 더욱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가 증가하고 농업노동력으로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종사자로서의 역할에 비해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기여분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여 여전히 동원이 용이한 농업보조자로, 단순노동만을 제공하는 주변적 노동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은 영농종사자로서, 생활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농업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현재 여성농업인들은 과거 여성들이 하던 노동이외 남성의 영역까지 확대된 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경작작물이 확대되면서 기술적인 섬세한 작업으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으며(전정숙, 1994), 앞으로 수도작 위주에서 상업농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남편과 비슷한 정도로 자가영농에 참여하는 공동경작유형이 정착될 전망이다(김이선, 1997)이나, 여

성들의 농업참여가 늘어나면서 농사일로 인한 어려움은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여성의 농업노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촌의 일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여성들의 부담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또한,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의 기술숙지 정도 및 기계 운전능력은 낮은 상태이며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또한 제한되어 있다(김중숙·정명채, 1992; 김이선, 1997). 이와 더불어, 여성농업인들은 영농에의 주체적인 참여에서는 제한적이다. 즉, 여성농업인은 밭 농사의 대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반면, 경운, 정지, 운반과 같은 작업에의 참여는 저조하다. 영농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예컨대 농지의 구입과 매각, 영농자재의 구입, 농사일정과 품종 선택, 노동력 조달, 농산물 판매 등이 주로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김중숙·정명채, 1992). 또한 농업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조직과 관련한 가내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의 소외가 특히 심각하며(김이선, 1997), 같이 농업노동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도 남편위주로 재산이 형성되어 여성농업인들이 가진 경제력은 거의 드문 형편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그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업구조 재편과정에서 기술인력이 점차 중시됨에 따라 여성농업인들은 단순노동자로서 그 위치가 주변화될 위험이 높

<표 1> 성 별 농 가 인 구 분 포

(단위 : 명(%))

	총 농가인구	15세 이상 농가인구	농업 주종사자
전 국	3,530,102	3,152,840	2,058,880
남 성	1,715,127	1,513,293	974,430
여 성	1,814,975	1,639,546	1,084,450

출처: <http://www.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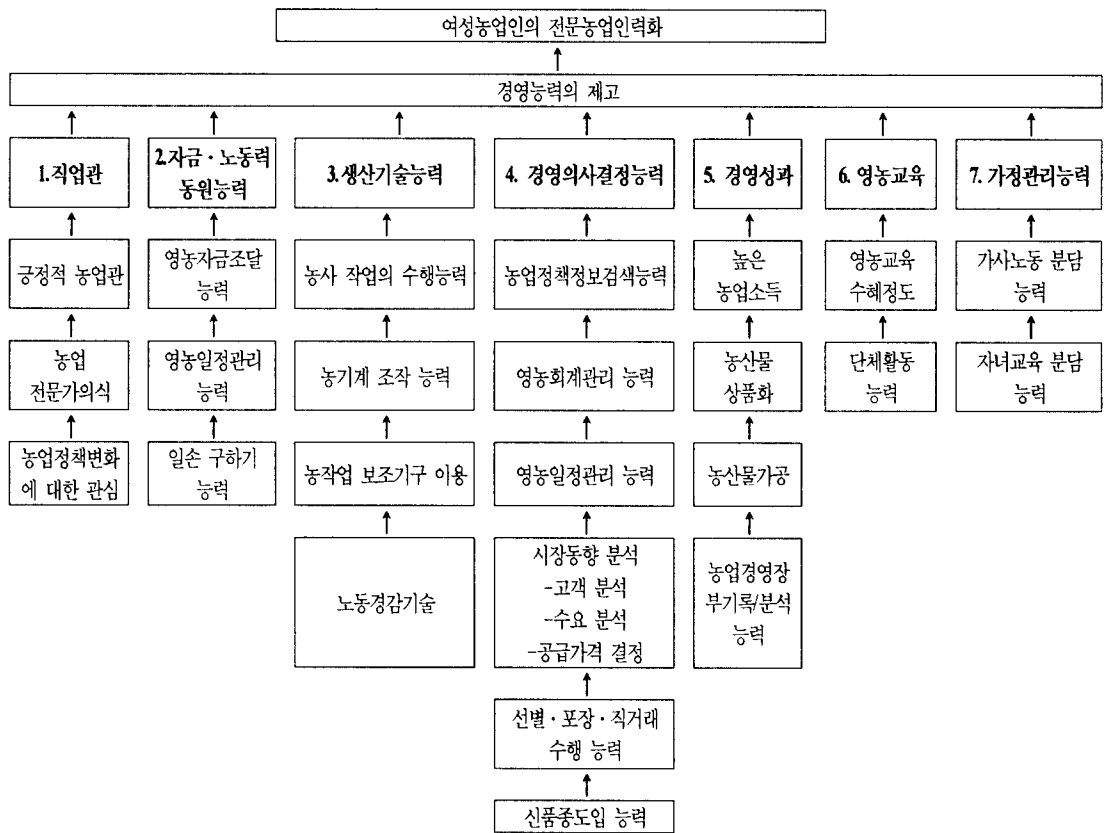
을 수 있다(김이선, 1997). 그러므로 여성이 농업생산체계와 농촌사회에서 주변인이 아닌 주체자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화 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최근들어,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그것도 특히 전문적인 농업경영인화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력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은 직업관, 자금 및 노동력 동원능력, 생산기술 능력, 경영의 사결정 능력, 높은 농업경영 성과, 영농교육 및

단체활동의 능력, 가정관리 능력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이호철 외, 2001).

특히, 다음에 제시될 7가지 영역이 잘 이루어지고 본다면, 여성농업인이 전문농업인력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이른바, ①공정적인 농업관을 지니고, 스스로 전문가 의식을 지니면서, 농정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질 때, ②영농자금을 잘 동원하고, 적절한 노동력을 이용하며, 영농 관리를 원활하게 행할 때, ③농작업 수행의 숙련도가 높고, 농기계를 잘 다룰 때, ④농업정보 획득능력, 회계관리 능력, 경영 의사결정 능력, 판매 능력 등을 고루 갖추었을 때, ⑤농업경영으로 얻는 농가소득이 높을 때, ⑥영농교육과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에 적극적일 때,



〈그림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를 통한 전문농업인력화 방안

출처 : 김이철 외, 2002: 47.

⑦가사노동에 있어 부부간의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질 때이다.

위의 <그림 1>에서 제시된 것들은 여성농업인이 전문경영주로 거듭 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도력과 경영능력을 제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농업인을 위한 직업교육은 아직도 전문강사진의 부족과 표준교재 개발의 미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지만, 여성농업인들의 현장 수요에 발 맞춰 현실의 농업·농촌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작된 것이 여성농업인 일감맞기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일감맞기 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여성농업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많은 지역의 여성농업인들이 일감맞기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감맞기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추진배경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Ⅲ. 여성농업인 일감맞기 사업 추진배경 및 현황

#### 1. 여성농업인 일감맞기 사업 추진 배경

여성농업인들은 농사일은 물론 가사일에 종사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농업노동의 내용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손으로 하는 농작업이 위주가 되어 여성의 능력을 벗어나는 노동의 참여가 대부분이다. 또한 실제 농가주부의 노동시간은 남성보다 길면서도 그들의 노동평가는 상대적으로 열등하여 농가경제에의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그리고 농촌의 노령화·부녀화 추세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투하량은 늘어나는 반면 1일 생활시간 중 노동시간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그동안 농업노동에만 적극 참여하

던 여성의 노동력을 농업 이외에 보다 여성의 능력에 맞추면서 효율성이 높은 타 활동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게 되었고, 아울러서 농촌여성으로 하여금 농가경제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가능성을 길러주면서 실제적인 농가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게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그런데 농촌에서의 부녀자 소득활동은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에 계기로 조직화되고 활성화된 부업단지도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소득활동에의 참여를 기피하거나 참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①고도의 기술과 자본이 없었다는 점, ②적정한 시설이 없다는 점, ③가사일과 농사일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점, ④가족노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농업의 실정상 바쁜 농사철에는 농사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 등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1989년 농촌여성이 감당할 수 있는 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농촌여성 소득활동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당시 농촌여성들이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9.2% 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①농외소득 활동의 종류는 하청업 25.8%, 취업 51.4%, 자영업 19.3%, 기타 2.5%로 나타났으며, ②현재의 부업활동이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답한 비율은 82.3%, ③타인에게 권유하겠다고 70.6%, ④계속 종사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90.3%였으며, ⑤농외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동기는 생활비나 자녀학비 조달을 위한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농촌여성들이 경제력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소득여건의 불비로 전체 농외소득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고 농촌여성에게 적합한 일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외소득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1990년 농촌진흥청이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농외소득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1990년 당시 농촌여성 소득활동 과제는 ①농촌여성의 능력에 맞는 소득원(비농업분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농촌여성이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하며, ③지역여건에 알맞은 소득원 발굴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며, 기대효과는 여성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후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업지역이 늘어나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되었으며, 여성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여성 스스로 삶의 의욕과 자긍심을 갖게 함과 동시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농가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000년 이후, 본 사업은 여성을 중심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농업생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시적 실업의 반복에서 오는 유희노동력을 경제활동에 연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가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를 가공, 판매하여 지역 내 부족자원을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킴으로서 그 범위가 조금씩 확대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을 농촌 일감갓기 사업으로 바꿔 여성이 사업의 주체가 되지만 부분적으로 남성도 가담할 수 있게 하였다.

## 2. 일감갓기 사업추진 현황

1990년 일감갓기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전국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선정하여 육성하였는데 2003년에는 169개소로 확장되었으며, 개소당 8~40백만원씩 총 4,85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지원금은 공동작업장 확보, 생산설비 및 기자재 설치, 기술습득 및 재료구입, 포장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 제작 등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생산품목은 초창기에는 김치, 도토리묵, 메주, 말린 나물 등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이용한 품목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해가 갈수록 따라 품목이 다양화되어 현재는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등의 전통장류, 한과류, 사과·배·포도 등의 음료류, 참기름·들기름 등의 기름류, 콩나물, 잔치음식 등 농산 식품류는 물론 천연염색 제품류, 삼베가공 제품류, 누비 제품류, 생활압화 등 비식품류를 제작하여 폭 넓게 접근하고 있다.

한편, 일감갓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대표자와 담당지도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연찬회를 실시, 제품생산기술의 향상과 유통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으로 전통식품 인증을 받거나 해외 수출하는 사업장까지 생겨났다. 1998년부터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가소득정보의 서브메뉴에 일감생산 제품정보를 DB화하였으며, 2000년도에 시작한 일감갓기 사업장별 홈페이지는 2002년까지 105개소를 구축, 지원하여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였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38개소 사업장에 개소당 30백만원씩 품질향상비를 지원하였으며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①사업장별 홈페이지 제작지원 105개소(2002), ②생산제품 전시 및 책자 발간 6회 1,000부, ③사업장 컴퓨터 지원 1,271대, 2,322백만원(2001~2003)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안정된 사업장은 한 해 평균 농가당 소득이 6,600천원을 올리고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체적인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고품질 생산기술과 경영능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중앙, 도 및 시·군단위에서 제품생산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포장개선과 브랜드 개발에 예산을 할애하여 일감갓기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즉, 중앙단위에서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1996년부터 식품가공 저장에 관한 이론과 실습, 유통과 마케팅 전략, 현지견학 등을 내용으로 한 농산물 가공이용 과정을 개설하였고, 1998년부터 일감갓기 사업지역 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장류가공 과정을 2002

년부터는 한과 제조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왔으며, 교육비는 참석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농산물 가공 이용과정을 포함한 농촌 생활과학분야 교육기능이 농촌진흥청 소속 한국농업전문학교 연수과로 이관·운영되고 있다.

### 3.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개념 및 기본전략

#### 1) 일감갓기 개념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그에 따른 소득으로 생활필수품인 공산품을 사서 써야하는 농가경제의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공산품의 구입가격간의 관계인 농가교역지수가 차츰 좋아지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키우거나, 그것이 제한된 농가들은 그의 경제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농촌 일감갓기 사업은 농가의 경제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하겠다(이영석, 2003).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사업에 따른 직업교육은 여성농업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여성 스스로 삶의 의욕과 자긍심을 갖게 하고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농가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농촌진흥청, 1994, 1997)하기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일감갓기 사업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그 개념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 농업이 가지는 특성, 특히 생산의 특수성인 농번기와 농한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의 반복에서 비롯되는 유휴 노동력을 경제활동에 연결시키고, 둘째 자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를 가공하여 판매토록 하여, 농촌지역사회 내의 부존자원을 농가소득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 2)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사업에 따른 직업교육의 기본전략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사업은 사업장에 따라서 그의 규모, 투자규모, 매출액, 자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매우 다양하다. 이는 곧 각각의 사업장이 각각의 사업 아이템과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 및 심사받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사업자들에 대한 직업교육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감갓기 사업장은 사업주체가 되는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두며, 둘째, 일감갓제품은 해당지역 및 그 주변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지역사회의 농업생산과 별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 공동체의식을 더욱더 고취시키도록 한다. 셋째, 사업을 위한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에 의해서 행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협동 의식을 함양하고, 넷째, 사업의 영역은 향토음식, 놀이, 생활도구 제작 및 사용 등의 전통문화 체험, 농촌체험과 같은 사업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와 같이 사업개시 3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중에 자립경영 단계에 이르도록 지도·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정숙(1999)은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을 시·군 단위와 중앙·도 단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군 단위별로 ①적절한 업종선정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매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②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군청에 종합민원 신청으로 처리기간을 단축(농지전용 허가, 건축물 신축, 공장설립허가, 식품제조영업 허가, 식품첨가물 허가, 폐기물 처리 등)해야 한다. ③사업추진자문위원회를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군청 산업과는 포장비 및 판로확보, 위생과는 식품관련 인허가, 농협시군지부는 사업비 저리 융자, 농업기술센터는 생산기술 지도, 지역농축협은 연쇄점에 일감제품 판매장 확보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④법적 규제 및 지원사항 파악 및 사업인허가 취득 후 사업 실시이다. ⑤추가자금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기반조성 후 연차적 재투자자금을 지원(행정기관 연계)해 주는 것이다. ⑥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품질인증 마크 획득, 위생적인 생산처리 및 철저한 사후 품질관리, 농촌여성 일감갓기 사업 공동브랜드 제작 활용 등을 말한다. ⑦지속적인 홍보와 출향인사를 활용하여도·농 직거래를 통한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도 단위별로 ①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술 교육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경영기술을 교육하고, ②일감갓기 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제작으로 인지도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③발전가능성 있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지원을 한다(지속적인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보완, 제품 개발, 포장 개선비 등), ④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한 품목별 공동협의체를 조직한다. ⑤일감갓기 사업 제품의 상설판매장 설치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사업과 그에 따른 직업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이른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감갓기 직업교육을 통해 실질적 소득을 보완·증대시킴으로써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에 크게 뒤지지 않도록 하고, 둘째, 농촌마을 단위의 직업교육을 통해 공동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농촌경제를 보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활기가 있는 마을 공동체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농촌공동화와 도시과밀화를 완화시키며, 셋째, 직업교육을 통해 신선도와 안전성에 앞선 우리 농산물과 식품가공화 능력을 향상시켜, 식품의 청결과 안정성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함

은 물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 틈새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며, 특히 주로 수입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상업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식품과 수입가공식품을 적절한 선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 넷째,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차츰 잊혀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다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전통식품을 계승화 하는데 기여하고, 다섯째, 직업교육을 통해 인재 발굴은 물론, 후속 인재를 더욱더 지원하고, 앞으로 세계화에 확실한 전략인 가장 한국적인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 4.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의 중요성, 목적과 범위

##### 1)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의 중요성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 교육의 중요성은 일감갓기의 개념과 기본전략에서도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 스스로가 직업의 소중함을 알고, 일감을 가짐으로써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주며 농촌정착 의지를 고취시킨다. 둘째,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자신들의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일감을 발굴함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서 여성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가의 농외소득을 향상시켜준다. 셋째, 농업생산의 특수성(농번기와 농한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의 반복에서 오는 유희노동력을 직업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에 연결시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넷째, 직업교육을 통해 자가 또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능력을 키우고, 지역 내 부존자원을 가공·판매를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직업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발굴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인재



를 양성할 수 있다. 여섯째, 직업교육에 참여한 여성농업인들은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 농업인으로서 긍정적인 직업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일곱째, 다양한 농촌일감 사업을 발굴하고 또한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전자상거래로 판로를 확보하고 각 지역사회에서 생산된 제품 홍보를 강화시킬 수 있다.

## 2)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 목적과 범위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의 목적은 첫째, 농가의 소득이 농산물 생산만으로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보완하고 증대시킴은 물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공식품 틈새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과 이를 개발해 낼 수 있는데 필요한 시대적 흐름을 읽는 능력을 직업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둘째, 여성농업인에게 올바른 직업의식을 고취시켜 일감갓기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사회 단위의 공동경제활동을 보완하고 활기있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여 농촌공동화와 도시과밀화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여성농업인에게 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세계화에 가장 확실한 전략인 '가장 한국적인'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하여, 일반인에게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다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일감갓기 직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범위는 크게 일감갓기 사업의 범위와 직업교육범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의 범위로는 첫째, 사업주체인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사업장이 있고, 둘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셋째, 가공·생산·상품화 작업이 해당 지역 거주자(농어민)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업과 넷째, 이와 연계된 식품(장류: 된장·고추장·청국장, 전통한과류, 과일즙, 참기름, 콩나물 등), 천연염색직

물류, 누비제품류, 삼베가공제품류, 놀이, 생활 도구 제작 및 사용 등의 전통문화 체험, 농촌체험과 같은 사업과 관련된 것들까지로 제한한다.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에 따른 직업교육의 범위는 사업의 범위에서 제시되었던 내용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즉, 지역사회마다 일감으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이 독특하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은 일률적인 교육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농산물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차별화된 교육내용 제공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제공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상용화, 자신의 마을에서 생산해 낸 농산물을 가공 및 상품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전문적 수준까지 이르도록 하는데까지가 그 범위라 할 수 있다.

## 5.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프로그램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감갓기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생활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다. 특히, 창의적인 사고와 체계적 지식 및 정보 관리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능력과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지도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일감갓기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시행했던 프로그램 현황과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창업자를 위한 직업 교육프로그램 현황 및 내용

#### (1)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창업자를 위한 직업 교육 현황

〈표 2〉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창업자를 위한 직업교육 현황

연도별	과정별	기간	대상인원	교육내용		
				이론	실습	현지견학
1998	장류가공	8.24~26	37	장류의 효능 포장방법 등	된장, 간장 제조 등	-
		8.27~29	42			
1999	장류가공	8.26~28	65	전통장류의 화학적 성질, 마케팅 등	메주 고추장 제조 등	-
		9. 1~ 3	35			
2000	장류가공 식품조리	3.27~29	36	장류의 상품화 등 음식문화	참쌀고추장 계절별	-
		4.10~12	40			
2001	한과제조	4.23~25	40	한과문화	유밀과 정과, 옛강정	-
	장류가공	3.26~28	41	식품위생법	메주, 된장, 간장, 고추장 제조	-

(2)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창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사례

6.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사업성과 및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사업성과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사업의 성과는 경제적으로는 1인당 평균 455만원(1997년에 시작한 10개 사업장)의 소득을 올렸고, 평균 5.2명이 8개월간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외적으로는 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 충족 및 잠재력 개발에 기여하였다(김화남, 2000).

이와 관련하여 고정숙(1999)은 경제적 측면에서 ①농가소득 증대, ②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지적하였고, 비경제적 측면에서는 ①농촌여성의 욕구 충족 및 잠재력 개발, ②경영자로서의 능력 개발 및 자긍심 향상, ③여성 자신의 통장 소유 및 현금보유를 통한 금전관리 능력 향상, ④농산물가공 및 비농산물 생산 기술 습득기회 제공, ⑤전통의 맛을 살린 농산물 가공으로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 ⑥마을 주민의 단

합 계기 조성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공 등을 들고 있다.

또한 ①농특산물과 지역이 주는 이미지를 결합시켜 명품화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②지역사회 주민들이 생산한 원료농산물의 고정적인 공급처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은 물론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 ③일감 창출을 통해 농한기 농촌의 유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농외소득의 증대 기여, ④주변의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자체 관심사업으로 부각시켰다(김화남, 2003).

결과적으로 여성농업인 일감갓기의 직업교육 성과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농산물 가공 및 비농산물 생산 기술을 습득하여, 그것을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기여하였다. 또한, 농한기 때에도 일감창출을 통해 유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각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주민들이 단합되어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표 3〉 여성농업인 일감맞기 창업자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사례

장류가공과정 교육프로그램								
1. 교육목적	① 전통장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가치 및 과학성 인지 ② 전통장류 제조 및 상품화 기술 체계화로 농업인 소득 증대 기여							
2. 교육실시 개요	① 교육기간: ○○○○. ○. ○~○. ○(3일간, 합숙) ② 교육대상: 장류가공사업 참여자 및 희망 여성농업인(41명) ③ 교육장소: 농촌자원개발연구소 강의실, 조리실습실, 전산교육장 ④ 교육참가비: 1인당 30,000원 ⑤ 교과운영: 6과목(23시간 100%), 소양분야 1과목(4.3%), 직무분야 5과목(87%), 행정 분야 2과목(8.7%) ⑥ 주요교육내용 - 전통메주·된장·간장·고추장의 제조방법 -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규, 식품가공시설 - 마케팅환경의 변화와 마케팅 전략 ⑦ 교수요목							
	교과목	총 시 간	교 육 방 법				교 수 요 목	
			강 의	실 습	사 례	견 학	시 청 각 타	
	계	23	9	4	2	-	6	2
	▶ 소양분야	1	1					
	1. 농촌생활연구 사업 방향	1	1					농촌생활과학 연구방향
	▶ 직무분야	20	8	4	2	-	6	-
	2. 장류제조 - 전통고추장 제조 방법	4	1	2			1	- 고추장의 특성과 분류 - 고추장의 재료 - 전통고추장 만들기 - 현대식 고추장의 표준화
	- 전통메주·된장 ·간장 제조방법	5	2	2			1	- 장류의 어원 - 전통메주 및 관여 미생물 - 제조원리 및 제조 표준기법
	3.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규	2	2					- 식품위생의 개념 - 식품위생법규
4. 마케팅환경의 변화와 마케팅 전략	3	2				1	- 마케팅환경의 이해 - 시장선정 및 영업우위 전략 - 성공하는 영업인의 의식과 행동	
5. 식품가공시설	2	1				1	- 농산물가공시설의 특징 - 식품가공시설의 구도와 부대시설 - 주요 농산물 가공식품별 기계장치 - 장류의 가공시설	
6. PC를 활용한 장 류관련 정보탐색	2					2	- 알아둘 몇가지 용어 - 정보검색 - 장류사이트 검색하기 - 찾아가 불만한 장류사이트	
- 교육생 정보교환	2			2			현지 장류가공 사례 발표	
▶ 행정 및 기타	2					2	- 입교식, 수료식 - 평가 및 설문조사	

## 2)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여성농업인 일감갓기를 위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감의 품목과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생산, 작업 등에 대한 기술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숙달되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만, 회계능력, 경영능력, 판매 및 경영마인드 등의 분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이 절실하다. 특히, 일감갓기 사업장의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둘째, 자립가능단계 3년 이내 2회 연속적 직업교육프로그램 및 안전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일감갓기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립경영단계에 이른 사업장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잊혀진 전통식품을 발굴·재현하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과 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가공기술, 판매방법, 사업경영방법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이다. 여성농업인의 정서는 아주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게 제공해야 할 교육프로그램은 농산물 및 가공품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장의 성장단계별로 차별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상업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공식품과 수입가공식품을 견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농가의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외적요소에 대한 평가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교육외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첫째, 대내·외적인 농업여건의 악화로 농산물 생산

만으로는 소득보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지역민에 의해 생산, 가공, 상품화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으로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개인 및 마을공동체의 활력화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되었다. 셋째, 일감갓기 사업은 농업인 특히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농산물 생산을 가공과 연계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을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되어 틈새 시장 공략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사업에 있어서 김화님(2003)은 직업교육외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를 생산측면, 운영측면, 판매 및 유통측면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장류(28.2%), 음료류(15.2%), 한과류(12.3%)가 주를 이루고 있다. 둘째, 일부 사업장의 작업환경이 미비하다. 작업동선이 비효율적이며, 작업장 내부의 정리정돈 미숙 및 환경이 불량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선정시 일부 편중된 생산품목에 대한 지원을 지양함으로써 자체 경쟁 확산을 예방한다. 즉, 작업공정에 따른 능률적인 작업대 배치 및 작업구획 정리 요령을 지도하는데 예를들어, 원료보관창고 → 세척 → 가공 → 제품 완성 → 포장 → 제품보관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둘째, 장기계획에 의한 작업장 설계 및 배치를 권장한다. 셋째, 연찬회 등을 통해 작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넷째, 생산품목의 다양화를 유도하여, 자립경영단계 사업장에 대한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 지원과 기술지도를 강화한다.

운영측면에서는 첫째, 지나친 규모 확장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농업인들의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 셋째, 경영부실 예방조치가 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일감갓기 사업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립

경영단계까지 지도한다. 둘째, 경영마인드를 직업교육을 통해 제고시킨다. 예를 들어, 회계, 경영, 판매 분야 교육 과정 개발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사업계획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계획 및 능력 위주 심사는 물론,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경영부실예방을 위하여 사업초기부터 개시한다.

판매 및 유통측면에서는 첫째,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다. 둘째, 품질은 우수하나 포장 등의 미숙으로 저가품으로 오해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홍보를 강화한다. On-line, Off-line상의 정기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다양한 판매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품목별·지역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자발적인 판매망을 확충하고 지원한다. 또한, 상품화 즉 포장 및 디자인 개발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 IV.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직업 교육의 발전방안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사업은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한 농가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농산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서 농촌공동화와 도시과밀화를 저지하고, 활기가 있는 농촌마을 공동체 유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차츰 멀어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보다 쉽고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장차는 세계화에 가장 확실한 전략인 가장 한국적인 전통식품을 보존하고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여성농업인들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직업교육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이영석, 2003).

첫째, 사업 참여자들의 경영마인드 고취이다. 제품의 가공·생산·작업 등에 대한 기술은 비

교적 빠른 시간 안에 숙달되어 제품생산은 3년 이내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만, 사업장의 회계, 경영, 판매, 그리고 경영마인드 등의 분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업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고, 특히 사업장 대표자가 갖추어야 할 경영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둘째, 일감갓기 사업의 성패는 소득 여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소득 극대화를 목표로 경영하지 않을 수 없고, 식품가공업체들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농촌일감갓기 사업장이나 농촌의 전반적인 정서는 노는 것보다는 낫다거나 노느니 용돈이라도 버는게 낫다는 소박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농업인들이 일감갓기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긍심, 사업마인드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셋째, 1차적인 목표인 자립경영 단계에 이른 사업장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잊혀진 전통식품을 발굴·재현하는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도약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한 제품개발에 대한 지원과 지도도 꾸준히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내산 원료로 만들어진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제품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소비확대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일감갓기 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물론, 농촌일감갓기 사업 자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사업장까지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500여 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면 상당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화남(2003)은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사업자들을 위한 직업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농산물 개방화로 인해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하는 농가소득 증대의 한계를 극복하는게 필요하다. 둘째, 농업·농촌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수

준의 인구가 농촌에 살면서 보람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업자본과 저가의 수입농산물에 밀린 전통식품 가공산업을 지역농산물 생산과 연계시키는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 정성과 일손이 많이 들어 점차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기술을 앞으로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의 안전먹거리 및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틈새시장 공략사업으로 확대 발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관련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여성농업인 일감갓기 사업을 일선에서 지도하는 공무원과 사업참여자들이 농촌일감갓기 사업의 의의와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상응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일들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농업인들이 일감갓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특히 경영마인드, 회계, 경영, 판매 분야에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을 강화하고, 전통식품을 발굴·재현하며,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전 국민을 상대로 농촌일감갓기 사업을 널리 알리고, 그의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농촌일감갓기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농촌일감갓기 사업 제품에 대한 것을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과 함께 직업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성일감갓기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는 법률과 제도에 대한 교육은 물론 여성농업인과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법률과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규정들은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보다는 제한과 규제를 담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농촌일감갓기 사업은 비록 시작은 '부업적'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영농

규모가 영세한 우리 농가들이 마을 단위로 힘을 합하여,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판매하여 소득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구심체로서, 우리 농업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실정에 아주 적합한 직업교육 모델의 하나라고 하겠다.

농촌 일감갓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동안 부족했던 사업마인드 진작과 경영기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도 이 사업의 파급효과와 의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 사업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특산물의 가공을 감독하고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법률과 규정들은 이를 육성하고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농업인의 일감갓기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하여 농촌여성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각 농가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농업인 스스로도 평생교육을 통해 사업을 펼쳐 나가려는 자기주도적(self-directed)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V. 참고 문헌

1. 고정숙, 1999,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실태 조사 연구," 농촌생활과학, 20(1): 37-43.
2. 김숙희, 1994,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 제품의 생산과 판매방안," 농촌생활과학, 15(1): 30-34.
3.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4. 김정미, 1998, "전통의 맛을 살린 된장 제조 사업 지도," 농촌생활과학, 19(4): 73-75.
5. 김종숙, 1994,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 우리농산물먹기 실천교육 교재.

6. 김종숙·정명채, 1992, 농촌여성의 의식 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김화님, 2003, 농촌일감맞기 사업 추진방향, 농촌일감맞기 사업 평가회(2003. 7. 22) 자료집.
8. 김화님, 2000, “99 생활개선사업 실적 및 2000년 사업계획,” 농촌생활과학, 21(1):9-13.
9. 노영숙, 1994, “경쟁력 있는 농촌여성 일감맞기 사업: 유과 제품 생산,” 농촌생활과학, 15(1):53-55.
10. 농촌진흥청, 1997,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평가보고서.
11. 농촌진흥청, 1994,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 발전을 위한 연찬회 결과 보고서.
12.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13.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0,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14. 박덕자, 1998, “농촌여성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농특산물 이용방법의 개선,” 농촌생활과학, 19(4):71-73.
15. 이동필, 1998, “농외소득원개발과 농촌여성 일감맞기사업의 활성화,” 농촌생활과학, 19(4):64-70.
16. 이영석, 2003, “농촌일감맞기 사업의 과제와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3):47-57.
17. 이호철·최수영·박재홍, 2001, 여성농업인 현실과 발전방안, 2001년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농업경제학회.
18. 이호철·최수영·박재홍,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방안,” 농촌사회, 12(1):37-60.
19. 전정숙, 1994, 농촌유형별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한국여성개발원, 2001, 각종 농업정책의 성분석, 농림부.
21. 한국여성농민연구소, 1997, 여성농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조사 연구.

<http://www.rda.go.kr>

<http://www.nso.go.kr>

(2004년 5월 18일 접수, 심사후 수정보완)